

고민을 묻고
답하다

2020부평문화포럼_라운드테이블 대담집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고민을 묻고 답하다

뉴노멀
시대,
로컬리티

2020부평문화포럼_라운드테이블 대담집

뉴노멀
시대,
로컬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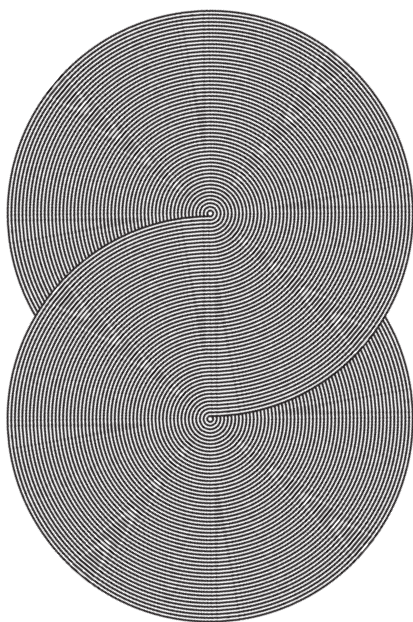
2020부평문화포럼_라운드테이블 대담집

부평문화재단

고민을 묻고
답하다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 고민을 묻고 답하다

2020부평문화포럼_라운드테이블 대담집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입니다.

참 고단했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꿈과 희망에 가득찬 날들이 시기를 지면을 빌어 인사드립니다.

2020년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와 자치분권에 대한 청사진들이 제시된 한 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평문화포럼 또한 지역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의 형식을 탈피해 지역주민, 지역예술가,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 전문가와 작지만 깊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과 문화 전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해 깊은 고민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뉴노멀시대, 로컬리티:고민을 묻고 답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토론그룹별 각각 다른 소주제로 대화하였지만 결국 지역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희망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대화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 중 나왔던 소중한 의견들을 잘 정리해 정책방향으로 삼아 앞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 독창적인 지역문화진흥과 신뢰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작은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대화 나누어 주신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어떠한 변화를 또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배려하여 소외당하는 이 없이 문화예술로 보듬을 수 있다면

따뜻한 날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를 위해 부평구
문화재단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지
지 부탁드립니다 부평구민 모두가 강건하시길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영 훈

부평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부평문화포럼’은 지역 문화 정책의 장으로 2015년부터 문화예술 이슈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오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이슈가 있는 올해는 오픈 포럼이 아닌 토론 부분 개체별 FGI(표적 집단면접법) 형태를 도입하여 심층적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뉴노멀시대라는 변화된 시대의 도래에 대응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문화정책 흐름 및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현안을 파악해 관련 전문가, 지역민, 지역예술인, 재단 관계자와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부평구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2020부평문화포럼_라운드테이블은 버나드 쇼의 “만일 역사는 반복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가”를 주제문으로 갖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 사회적 가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 정체성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10월 17일 진행되는 <Section 1 뉴노멀시대, 지역사람의 생각과 기대>는 지역주민과 재단의 시민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Section 2 뉴노멀시대, 지역예술의 가치와 미래>는 1, 2부로 나누어 지역문화의 뿌리인 지역예술인과 함께 부평구문화재단을 바탕으로 한 지역 예술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치유와 회복 등의 함의를 끌어내도록 토론했다. <Section 3 뉴노멀시대,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는 재단 내 워킹그룹과 지

역문화재단의 관계자와의 각각의 토론을 통해 지역 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단계로 설정한다. 마지막 〈Section 4 뉴노멀시대, 로컬리티결론〉에서 단계별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두고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로컬리티를 견고히 하고자 했다. 뉴노멀시대 모든 것의 불확실의 시대에 지금, 로컬리티에 대해 자크 엘뤼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사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고갔다. 이 대답집은 그 결과물이다.

Section 1.

뉴노멀시대, 지역사람의 생각과 기대



지역민 중심 시민 그룹의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토론으로 로컬리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생각,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바람, 이를 통해 살고 싶은 부평을 위한 방향 모색 등에 대해 대화했다.

2020. 10. 17. 토요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함께 한 사람

최은영 _부평구문화재단 문화나비 개인회원(시민회원)

윤현정 _부평구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곽문석 _부평구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김경아 _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최지희 _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부평구문화재단 김유정(이하 재단)

만나서 반갑다. 간단한 자기 소개해달라.

최은영

주부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부개도서관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부평구문화재단을 알게 되고, 아트센터를 알게 되면서 시민회원(문화나비 개인회원)으로 가입했다. 결혼하고 부평으로 이사를 와서 아무래도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부평에 훌륭한 아트센터가 있어 감사하게 즐기고 있다.

곽문석

부평 기타동호회 프리핑거 운영진이다.

동호회 활동은 부평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한다.

문화사랑방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기도 한다.

윤현정

롤라장 여행스케치 강사이다. 부평생활문화동호회 가입 후 인연이 되어 전시까지 하게 되었다.

김경아

워킹맘이다.

공연과 전시 보는 것을 좋아해 부평구청 블로그 기자단으로도 활동 중이다. 5살 딸아이와 부평구문화재단 사업을 아주 잘 누리고 있는 지역 주민이다.

최지희

7세 남아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이며 취미로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다. 부평아트센터는 집과 가까워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재단

부평구문화재단은 전국 기초문화재단 100여 개 가운데 12번째로 설립되었다. 지금 문화도시 예비 도시로, 내년 1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대표 사업을 진행 중이고,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도서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타 기초문화재단에 비해 거대한 조직으로 수많은 사업과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부평구문화재단이라는 이름보다 시설들을 더 인지하는 실정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시설과 사업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단순 시설 운영보다는 지역민이 실생활에서 재단의 효용성, 역할들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보고 다음 사업의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반가운 친구와 악수조차 조심스러워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생활 속 변화가 궁금하다.

김경아

아이가 있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니까 예전처럼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 많이 불편하다. 공연장, 도서관들이 운영을 중단해서 기존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립 미술관, 아트센터, 도서관 등 공공영역이 제일 먼저 닫았다.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공공영역이라 생각하는데 모두 다 문을 닫아버렸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영역이 오히려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어야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최지희

그동안 문턱이 낮았던 아트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이 폐쇄되었다.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꺼려지고 시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올해 여름은 아트센터 분수대도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되어 지역주민으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최은영

나도 그랬고 사람들은 늘 자기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무언가를 즐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생기니 난 오히려 지역 안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 개인적으로 지역 안에서 만끽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도 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 두기, 적당한 사람이 있어서 좋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오픈되어 있으니 더 좋은 것 같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고 줌으로 수업도 듣고 하는 등의 랜선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아서 좋았다. 혹시 못 가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면 되니까...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 중이다.

곽문석

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동호회 운영을 거의 못했다. 동호회라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습관화되는 것이므로 지속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운영을 계속 안 하면 회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활동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다. 간간이 마스크 쓰고 하는 거리공연도 어렵고, 카페에서 연주해도 예전 같지 않다.

윤현정

계획되었던 상반기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되었다.

온라인으로 화상 드로잉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공간을 분리하고 구역을 나누어 인원을 제한해서라도 대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건의는 못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장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기분이 안 난다.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화면은 작는데 수강생은 많아서 작품들도 잘 안 보이고 시연도 잘 안되고 가르치는데 애로 사항들이 많다.

곽문석

나도 기타를 영상으로 독학했다.

동호회 활동은 독학으로 연주 스킬을 높이는 것

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기타 수업의 디테일을 못 잡는다. 효율적이지는 않
은 것 같다.

최은영

온라인 교육의 수혜자로서 이야기하자면 매우 만족
하는 편이다. 집콕하면서 온라인 밴드로 그림그리기
를 가입했다. 1일 1학기처럼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그
림 그리는 시간을 주고 나중에 업로드하면 된다. 재
밋는 건 언제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선생님이든
같이 교육받는 학생이든 누군가가 나타나 대답해 준
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들이 잘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프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재단

수많은 공간들의 이용에 제약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제일 안정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의 경험은 어떤 것들
이 있었나?

최지희

개별적으로 분리된 공간은 그나마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절대적 안심이라기보다는 심리
적 안정이 작용했겠지만 말이다.

최은영

직접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최근 JTBC 프로그램 ‘비
긴어게인’을 보면서 저런 공연은 안심하고 볼 수 있
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공연의 변화. 공간 분리, 시

간 분리가 가능하다면 안심과 함께 오히려 매력적인 콘텐츠로 느껴질 것 같다.

김경아

최근 아이랑 디뮤지엄 전시를 갔었는데 시간이 분리가 되어있어 한 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장하고 관람했다. 주최 측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했는데 마스크는 당연하고 위생장갑을 나누어주어 몸은 답답하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다.

재단

그동안 감염병은 사스나 메르스처럼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병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발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안 되니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데이터들이 활용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삶 전반이 문화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문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윤현정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온라인 유료 공연들도 많이 생기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 장비를 가지고 잘 찍어도 공연의 현장감은 느낄 수가 없다. 공연이든 사람이든 만남의 기쁨이 있는데 언택트 시대라도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곽문석

유명 가수의 방구석 콘서트 같은 온라인 공연들을 경험했는데 집중도가 떨어져 끝까지 보기 힘들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많은 콘텐츠들이 온라인화될 전망이 있는데 많은 수요자들의 집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

재단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 위주인 대형 규모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정부와 문화예술 관계 기관 또한 거점 중심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시설에는 문화재단도 있을 테고 공연장, 전시관 외에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등 작은 시설들이 매우 많고 이용자들도 많다. 그들이 소수로 모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생활문화가 방점이 아닐까 한다.

윤현정

소규모로 하게 되면 그 대상 범위를 세분화시켜야 할 것 같다. 10대, 20대, 연령대도 세분화시키고 가족, 연인, 친구 등 타깃층을 분명히 해서 촘촘하게 작업해야 할 것 같다.

최지희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매해 여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을 전시관에서 운영했었는데 회차별로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꽤적하게 체험했던 기억이 있다.

대형 클래식 공연은 현장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연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

아이들 온라인 뮤지컬을 최근에 아이랑 봤는데 아이도 집중을 잘 못하고 재미도 없어했다. 확실히 공연은 현장감이라는 생각이다.

최은영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으니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다. 유명 셰프가 집으로 와 콘셉트에 맞게 요리를 해주고 훌륭한 플레이팅도 선보이고...

어떤 칼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기계와만 하루 종일 대화할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수십배의 고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슬픈 상상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부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거라 예상한다.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수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되 다양한 타깃과 콘셉트에 맞춘 콘텐츠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단

부평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시설 중심으로 인식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위기로 다가온다.

최지희

부평아트센터를 예로 들자면 아직도 많은 지역민들이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 코로나19 이후 센터 근처에 거주지를 둔 주민들은 공연과 행사 다 취소되고 시설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저기는 뭘 할까. 솔직히 하는 게 없어 보여'라는 인식이 더 심해진 것 같다. 문화예술이란 것이 공급자들은 수동적이고 수요자들은 능동적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기관들은 먼저 찾아가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곽문석

방역 문제로 실내에서 무언가가 힘들면 부담이 덜한 야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김경아

나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재단을 시설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시설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을 잘 홍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전시, 공연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는 계기로 전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얼마 전 굴포천에서 독립서점, 공방 작가들이 모여 작은 생활문화 축제를 진행했는데 아이랑 참여해보았다. 플리마켓도 했는데 그 일대 부근이 활기차진 것을 느꼈다. 작은 소그룹들, 그들

이 모여서 뭔가를 기획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발굴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재단이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란 생각을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데 난 오히려 좋다. 워킹맘으로 시간의 제약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보고 싶던 공연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잘 보고 있다. 현장감은 많이 떨어지지만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을 즐기는 방법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윤현정

계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문화재 투어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발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마다 문 닫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 쓰면서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문을 닫으면 사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일반인들 특히 동호회들이 접근하기엔 사실상 부담스럽다.

재단

내가 살고 싶은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 부평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곽문석

일단 음악도시로 콘셉트를 정하였으면 확실히 좋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적는데 음악도시라는 명패만 달아놓고 연례행사로 진

행하는 느낌이다.

음악도시가 관계자뿐만 아니라 콘셉트에 맞게 좀 더 부각시켜 모든 것이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최은영

부평음악도시면 구민이 모두 1인 1악기를 연주하는 상상을 해본다. 특성화 초등학교처럼 트라이앵글도 좋고 하모니카도 좋고 다양한 악기들을 모두 연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해도 좋고 같은 동네 주민별로, 아파트 같은 동별로 든 모든 지역주민이 악기 하나씩 연주할 수 있는 음악도시를 꿈꾸어 본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부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부평이 될지도.

Section 2.

뉴노멀시대, 지역예술의 가치와 미래 1부

지역문화의 뿌리인 지역예술가와 변화된 환경안에서 예술의 사회적가치와 치유, 회복 등의 함의 등에 대해 대화했다.

2020. 10. 20. 화요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함께 한 사람

안정자 _서예 작가

신종택 _미술 작가

서광일 _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대표

권순식 _사진 작가

부평구문화재단 김유정(이하 재단)

코로나19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것들이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비전2030이나 지역문화진흥시행 계획 등과 맞물려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문화의 중요성과 예술인 복지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월성이 아닌 다양성 및 다원성을 가지고 논의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먼저 코로나19가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듣고자 한다.

안정자

코로나19 발병 이후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모임도 출강도 회의도 전시도 없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붓 잡는 입장에서 작업할 시간이 많아져서 작업의 양도 많아지고 주관적으로 작품의 질도 향상되었다 생각한다. 작가 스스로 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권순식

장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서예나 회화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지만 사진 하는 우리는 바깥 현장으로 나가야 가능한데 할 수 없어 많이 아쉽다. 서광일 대표가 운영하는 잔치마당은 매주 공연을 하는데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흥이 줄었다. 코로나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서광일

1월 말경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평의 큰 행사인 2월 정월대보름 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몰랐다. 막막한 심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은데 문화예술 분야 특히 지역의 예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해당이 되지 않아 줄줄이 누락된다. 내가 대표로 있는 공연예술단체 잔치마당은 문화예술 사업 특성상 비영리사업으로 정부의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지 못해 대출도 지원받지 못했다. 공연단체들은 공적 지원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많게는 공연의 70% 정도가 공모사업 형태이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못하니 공모에 선정이 되어도 공연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 잔치마당 같은 경우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과 단원 인건비 지급이 매우 힘들다. 코로나 시대에 예술인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놓여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헛헛한 마음이다.

신종택

사실 그동안 예술인들이 어려운 건 일상이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어려웠으니 마냥 어려워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펼치고 싶지 않다.

지역 예술인으로서 바라는 점은 재단의 예술인 지원 방법에 관한 몇 가지이다.

재단의 사업 계획에 지역 예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없다. 타 지자체와 문화재단들

의 공모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실천 가능한 것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 예술인들은 아직 공적 자원에 의존도가 높다. 지역의 문화재단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역의 예술가들은 작업을 유지해나가기 어렵다. 거주지가 이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면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모 사업들을 풍성히 마련해서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예술 단체와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많은 예술인들에 대한 DB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많은 예술인들이 누락되어 있다. 또 하나는 방금 서광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는 한 달에 30만 원씩 두세 달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로컬리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부평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지역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예술가와 지역의 문화재단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실내에서 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등이 많아져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여실히 나타난 것은 부평구문화재단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한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 수면에 가라앉아있다. 안타까운 일 아닌가. 그동안의 수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구민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해

야 하는지 잘 고민해봐야 한다.

안정자

지역의 작가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문화의 가치와 미래가 지역 예술가들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지역 예술가들이 설자리가 확대되고 견고해지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설립될 때의 역할과 현재 역할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권순식

지역 예술가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지역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할 기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부평은 각 동마다 풍물단이 있고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 주민센터들에서 소소하게 공연하고 지역 주민들을 가깝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생활문화센터도 그런 의미로 활용되면 좋겠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서광일

이번 포럼의 주제가 뉴노멀시대 로컬리티에 대한 고민을 묻고 답하다이다. 그렇다면 지역 예술가의 입장으로 고민을 묻는다. 재단은 과연 지역 예술가를 지역 문화의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는가? 파트너로서 예술가들에게 먼저 제안한 적이 있는가? 부평구문화재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부평구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부평아트센터가 개

관했을 때 지역의 예술가들은 많은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 파트너로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훌륭히 역할을 해 줄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바람만큼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지역 예술가, 지역단체와의 관계를 점점해 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은 누구와 경쟁하려고 하는가? 기초 문화재단은 지역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지역적 의미를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신종택

지역문화재단과 예술가들은 상생해야 한다. 정치 문화를 하지 말고 문화정치를 하시라.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히 움직여야 한다. 재단이 상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 지역 예술가들은 함께 방법을 강구하고 화합할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TF 팀이 꾸려졌으면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재단 관계자, 구청 관계자들로 구성해서 이런 포럼의 형태처럼 원탁회의로 현안들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이다. 오늘처럼 토론을 통해 로컬리티를 위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

재단

기존에는 단위 사업별로 고민했다면 조직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든다. 말씀해 주신 것들 정리하고 개선해나가겠다. 결국 우리는 로컬리티를 위해 지금껏 이야기 나누었는데 지역 예술가들에게 부평의 로컬리티는 무엇인가?

신종택

지역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 생각엔 애스컴이다. 지역문화는 역사성에 기반해서 발현된다는 생각이다.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부평의 애스컴을 살려내야 한다. 부평의 구심점으로 삼고 브랜딩 해서 랜드마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 미군 부대에 예술가들이 상주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평사람이 있어야 부평사람이 따라온다.

권순식

문화도시추진단에서 문화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부평의 역사 콘텐츠들을 그동안 많이 축적해 놓았다. 내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과가 나올 텐데 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애스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신종택

부평만의 철학이 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예술가들의 흐름을 통해 역사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역사는 형성되었다. 부평의 철학을 답을 때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서광일

인천의 정체성은 개항장이라고들 한다. 서구식 문물이 처음 들어온 곳이 인천 개항장이었으니까... 부평은 농경문화가 형성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애스컴이 만들어지고 미군들이 상주했고 산업화와 공업화를 거쳐 지금의 부평이 형성된 것이다. 부평의 문화

구심점을 부평문화원이 주도했고 그 힘으로 부평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부평문화의 상징성을 지닌 곳, 그 역할이 어디에서 기반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역 예술가들을 대표하기 위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부평은 풍물대축제를 24년째 개최하면서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하여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풍물이라는 것도 넓게는 음악 아래 있으니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부평이 음악도시라는 문화도시 콘셉트를 잡은 건 완벽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 정체성의 정립을 위해서라도..

신종택

음악이라는 큰 장르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 부평은 풍물의 도시이고 대중음악의 도시이고 결국 음악 문화도시이다. 예술 행위의 흐름을 잘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재단

도시의 문화콘텐츠가 역사성에 기반을 두고 시작해야 온전한 콘텐츠로 인정받는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오늘 주신 고언들을 통해 예술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Section 2.

뉴노멀시대, 지역예술의 가치와 미래 2부

지역문화의 뿌리인 지역예술가와 변화된 환경안에서 예술의 사회적가치와 치유, 회복 등의 함의 등에 대해 대화했다.

2020. 10. 22. 목요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함께 한 사람

조기평 _서예 작가 및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회장

신영자 _무용가

이연옥 _미술 작가 및 문화공간 운영자

권순금 _서예 작가

정유천 _대중음악가 및 인천밴드연합회 대표

부평구문화재단 김유정(이하 재단)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예술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달라.

정유천

많은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연의 묘미는 관객과의 호흡, 관객의 호응일텐데 온라인 공연은 관객과 교감이 없어 흥이 나지 않고 공연이 줄어 수입도 줄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이 단계별 지침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규제에 과하게 반응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공공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사리니 그러한 분위기가 민간에까지 위축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지나친 제재는 공연업계를 위축시킨다. 수많은 기관, 교회,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공연 관련해서 대단위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규제했다.

이연옥

미술작가이지만 공연의 새로운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중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다. 모두 힘든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준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다. 3년 전 지금 너무나 유명해진 임영웅의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10만뷰 가까이 된다. 해외에까지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체감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임영웅이라는 가수뿐만 아니라 우리 공간까지 홍보가 되었다.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울수록 길은 있다. 같이 고민하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안에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다. 그들을 발견해 내고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지역예술가가 성장해야 도 시도 발전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단단히 대비해야 우리의 미래도 있다.

조기평

예술인들은 늘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안 면역이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그 면역력도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모두 다 어렵다보니 예술인은 기댈 곳이 없다.

권순금

어려운 가운데에도 부평예술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의 역할은 예술로 지역민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지역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성돼서 지역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재단

2020년을 계기로 문화예술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

이제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술분야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조기평

예술활동 자체가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인데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은 더욱 많이 든다. 올해 부평예술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당초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엔 벅찼다. 다행히 북인천방송이 방송협찬을 해주어 촬영하고 방송 송출까지 책임져 주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시청률도 꽤 높게 나왔고...코로나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예술분야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공연예술이든 시각예술이든 작품을 제작하거나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단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능을 가진 지역의 예술가들이 수입이 없으니 지역을 떠나 활동을 하게 되는 현실이다. 지역에서 지역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신영자

원초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파격적인 지원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대비해서 온라인 콘텐츠나 방송 제작 같은 형태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려면 제작 비용의 예산은 증액해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재단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 새롭게 발견된 가능성,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달라.

정유천

예술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생각해 볼것은 부평의 문화예술에 대한 존재감이나 그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했을 때 특별한 경험이 없다. 문화재단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이다.

조기평

지역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예술인과 재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부재로 어려움이 생기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것 같다.

이연옥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소통이 필요하다. 자주 교류하고 소통해야한다. 조금 더 예술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 귀 기울여 주고 함께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

코로나이후 대형 축제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고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문화예술 이벤트들이 생겼으면 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7일장 같은...곧 개방될 캠프마켓이나 민간의 공간들을 발굴해서 함께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조기평

예술인 한 명 한 명, 작은 단체라도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 단체들에는 행정 지원을 위한 사무 공간 지원같은...요즘 예술인복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것도 복지 구조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예술이 살아야 도시가 발전한다. 예술인이 살아야 문화예술이 산다. 건물을 많이 짓고 인구가 많아진다고 도시 발전 아니다.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사람이 모이고 그로 인해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다. 예술이 살아 숨쉬고 문화가 발전해야 도시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재단

도시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문화와 연관이 깊다. 결국 로컬리티 문제인데 지역예술가들에게 부평의 로컬리티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신영자

지역예술인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살아야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그것들이 로컬리티로 발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로컬리티의 기본이다. 가장 작은 것부터 단단히 뿌리 내려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정유천

다양한 예술과 예술가 이들이 이룬 역사가 모두 지역문화의 씨앗이다.

서구 대중음악 관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부평의 역사이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우리가 음악을 콘셉트로 설정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이다. 대중음악에 힘을 실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과거부터 흘러왔던 모든 문화예술활동, 삶의 방식들에 대한 아카이빙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가 있어야 지역문화도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토대로 로컬리티는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Section 3.

뉴노멀시대,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 1부

변화된 환경 안에서 지역 문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지역 문화정책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 어떠한 노
력들이 수반되어야할지 부평구문화재단 워킹그룹들
과 대화했다.

2020. 10. 27. 화요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함께 한 사람

박재은 _문화도시사업팀 팀장

김성래 _문화도시추진단 사업담당자

이미숙 _문화사업팀 팀장

안효정 _문화사업팀 예술교육 담당자

임정인 _공연사업팀 팀장

임성순 _공연사업팀 하우스매니저

부평구문화재단 김유정(이하 재단)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움 중이고 언젠가는 끝날 전쟁이기에 그 후를 준비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종식된다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전문가와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확률이 크다. 우리는 뉴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생활 양식에 기반한 모든 것들은 변화될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나와 우리, 그리고 삶의 터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얼마만큼 정립 되는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뉴노멀시대: 로컬리티〉는 토론 개체별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지역주민, 지역예술가와 함께 토론하였고 오늘은 재단 내부 워킹그룹의 토론으로 외부 환경 분석과 함께 내부 영향까지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공통된 질문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변화와 혼란스런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안효정

올해는 대부분의 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담당자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하자면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침이 정확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지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 사

업 진행 불가 판단을 하였으나, 공모사업의 주관기관들은 ‘할 수 있으면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 안과 밖의 온도차가 커서 매니징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많았다.

예술교육 강사들도 예전과 같이 대면 형태의 교육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형태로의 즉각적인 전환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대면 형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기에는 절대적 시간 부족과 온라인 교육 경험 부족, 초기 투자 비용의 발생 등 개개인의 예술강사들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재단

생활문화 축제도 올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어땠나.

이미숙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또한 단계별로 다르고, 그 단계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그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생활문화나 예술교육 같은 수혜자가 분명한 사업은 그들이 모두 지침에 맞게 대응별 전략에 맞게 따라올 순 없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다.

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고 본다. 완벽한 메뉴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입

장으로 무언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했다. 생계 문제에 직면한 민간보다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변화한 환경에서 활동할 모델을 제시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고 그 상태로 멈추어 있었다. 민간의 영역보다 제약들이 많은 현실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했다. 각 지역의 재단들마다 해석이 달라서 어느 재단은 이 상황에서도 성장을 했다. 우리는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지 못 한 것과 위기를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그냥 멈추어 있었던 것이 못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도 열린 판단으로 위기 대응에 선제적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싶다.

재단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예술인들의 피해 액수는 대략 1,500억 원 정도가 된다. 추세를 감안하면 하반기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듯 예술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일반 지역주민들은 기꺼이 누렸던 문화향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관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하우스매니저로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공연장은 어떠했는지 말해달라.

임성순

관람객들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 입장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진표 등 방문객 기록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추가

되어 하우스어써들은 물론, 관객분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과정으로 인해 공연이 지연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이러한 상황들도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정인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우리 재단이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올 하반기 대관료를 받지 않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제약들이 많아 대관료 할인 같은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예술인지원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변경 같은 부분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대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경기문화재단이나 가까운 인천문화재단은 적립금 같은 예산을 코로나19 예술인지원 신규사업에 투입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겠지만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에 너무 매몰되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면 어차피 모든 공연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는데, 대관단체에게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름의 지원 방법이지 않을까 한다.

재단

부평아트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모든 것이 섰다운 되었는데,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문

화도시추진단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다. 어땠는가.

김성래

올해 사업들을 정성과 정량지표에 맞추어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변화된 환경 안에서 각 지표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규모 공연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형태로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형태나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사업과 만남을 소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민들과는 관계성이 확대되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박재은

개인적으로 한 번으로 끝날 일을 열 번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등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번거롭기도 했다. 온라인 영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허공에 외침같이 실감도 안 나고, 피드백들이 즉각 오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들이 일대일로 전환해서 더욱 시간을 쏟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게 돼서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는 더욱 좋아진 것 같다.

현장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지역 예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으니 영상 작업이라도 하자는 마음에 영상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

다 보니 자본도 없고, 편집 같은 기술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하니, 기술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개인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하기에는 힘들고 벅차다는 것 그리고, 지원사업이나 네트워크나 인력풀을 공유받는 등의 도움을 청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쓰지 못한 사업비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도시 추진사업에서는 올해 예술인과 공간지원 등의 지원 사업들이 늘었는데 긍정적이라 생각되며, 소소하게라도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을 유지하게끔 할 수 있는 만큼 재원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앞서 지역 예술가와 토론을 진행했을 때 코로나19로 일어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역 예술가와 재단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예술인들은 당장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지원 방법과 형태 등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숙

아무래도 현재는 위기적 상황이다 보니 ‘지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모두가 ‘지원’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동안 재단은 지역 예술가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업이나 거버넌

스 형태로 진행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이 추구하는 협업의 개념과 지역 예술가들이 원하는 지향점이 완벽히 일치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박재은

지원 사업 운영 시 계획안의 사업과 실행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워크숍 등 다양한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하다 보니 지원인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촘촘한 평가 과정 중에 형성된 관계들을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 끈끈해져 지속 발전 가능한 형태와 태도로 변화되는 것도 체감했다. 재단과 지역 예술가들이 관계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과정 중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초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

임정인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 공연사업의 입장에서 타 장르보다는 지역이 아닌 구민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공연을 올릴 때 지역예술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조성진이 부평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구민들은 좋은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보는 것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고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공연사업 분야에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예술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여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예술가들과의 공동기획 형태로, 그들 스스로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고 재단은 공간 대관이나 홍보 등을 지원하는 방법들도 있겠다. 상주단체 개념과는 별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시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

재단

묘안일 수 있겠다. 혼돈의 2020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차후 이런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서로 간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개선될 거 같음. 토론의 주제를 정해 자주 대화 나누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부평의 지역문화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미숙

오히려 한 가지 궁금한 건 올해 부평아트센터 10년, 재단이 14년이 됐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고개를 넘었는데 이때쯤은 운영방향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다. 어떠한 조직이든 대표자에 따라서 미션과 방향들이 설정되는 것인데 키를 잡은 선장의 방향은 모두 다 다를 테니... 현재 재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대표자의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떠한 색으로 채색할 건가가 설정될 테니 말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초반은 ‘음악’이라는 키

워드를 가지고 그에 맞는 색을 입히는 미션이 각 사업들에 주어져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가 수월했다. 재미있기도 하였고...그러나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고 각자 사업에 매몰되어 다른 사업과 큰 그림을 볼 의미와 여유가 없어졌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재단이 어떠한 색깔을 만들어야 할지 토론을 통해 결과를 찾고 공유해 부평아트센터의 사업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부평의 색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그것들을 향유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역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임정인

그동안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맹목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각각의 기관과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공유의 장을 통해 객관적 점검과 재단 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또 하나 우리는 지역문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므로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예전 문화HUB 지역탐방 같은 프로그램이 좋았다. 그때는 바쁠 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러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부평의 역사자원을 알고 이해해야 올바른 지역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

지역민들의 문화권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에 대한 고민을 직원들의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을 통해 지역과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 재단의 수많은 직원
들 또한 지역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지역민일테니...

Section 3.

뉴노멀시대,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 2부

전고한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정책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 어떠한 구조로 지역과 광역이 협력해야할지 이를 통해 문화자치와 분권을 이룩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인천 지역의 문화재단 정책 담당자들과 대화했다.

2020. 10. 29. 목요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함께 한 사람

손동혁 _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이소영 _인천서구문화재단 정책담당자

그리고 정시윤 _연수문화재단 문화도시팀 팀장

부평구문화재단 김유정(이하 재단)

올해 부평문화포럼은 코로나19 이슈도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취지와 함께 로컬리티에 관한 공통된 대주제로 각각의 그룹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앞서 지역주민, 지역 예술가, 재단 내부 워킹그룹과 이야기 나누었고 오늘은 인천 지역 재단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현재까지 총 5회차로 각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음 달 5일 3섹션까지 소주제별로 토론된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 듣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내년이면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해 재단의 역할 등을 고민하는 과정 중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로 삼고자 금년도 부평문화포럼은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정했다. 올해 같은 경우 문화예술계 전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고 이러한 일상적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대한 변화와 함께 로컬리티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문화포럼의 주제가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은 세 번째 부분으로 <뉴노멀시대,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라는 소주제로 지역에서 문화예술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인천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과 기초 차원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듣고자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등 각 사업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재단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사업에 변화를 준 사례와 진행 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과제, 그리고 나타나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한 예산 반영 계획 등을 이야기해달라.

이소영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계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대면성 사업은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송출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해 진행하려다 보니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했고 그것이 늦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형 축제인 정서진 클래식 콘서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비대면 온라인 송출 형태로 당초 계획대로 모두 추진하였다. 진행한 사업 중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마련해 진행한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세 미만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작업 비용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35세 이상 지역 예술가들에게 각 300만 원씩 작업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였다. 올해 30여 팀 정도가 지원받았는데 아마도 코로나19 이후 사업부문에서 진행한 사업 중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다.

재단

그렇다면 직접 지원 형태인데 사업의 정산 부분에 있어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였는가?

이소영

사업의 정산 부분에 있어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는

긴급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결과물 확인에는 타이
트하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었다.
대부분 비대면 형태로 사업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물들은 온라인으로 송출된 부분에 의해 검토 확
인하는 것으로 했다. 그 사업의 결과들을 검토함에
있어 정량적인 기준인 온라인 관객 수 등의 성과들
은 고려하지 않았다. 올해는 사실 많은 사업들이 대
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으로 전환 ·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채널 확대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올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
업, 콘텐츠들의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비를 활용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 사전 계획에 따라 준비된 고사양의 장
비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와 비교해 퀄리티의 차이
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내년에도 온라인으
로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 · 송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되는데 별도 예산으로 잡힌 것들이 있는가?

이소영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바램처럼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을 때 고퀄리티의 콘텐츠 생산과 온라
인 보급을 위한 예산은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
년 예산에 증가 부분을 확보되지 못했다. 이것이 내
년도 사업의 최대 난제이다. 온라인과 홍보가 문제
다. 부평의 예산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재단

부평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부평아트센터를 비롯해서 1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과 인력 부분의 고정비성 경상운영비 예산 비율이 높다. 매년 그 부분의 예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서구문화재단에서 고민하는 부분과 동일할 것 같아 나온 질문이었다. 현재까지 고정된 경상운영비성 예산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같다. 인천문화재단은 어떤가?

손동혁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실제 올해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 세입이 많이 줄어든 거고 세입에 가장 타격을 본 건 관광 분야다. 인천 같은 경우 관광 세입의 재원이 공항, 카지노 쪽인데 외국 입출국이 잘되지 않아 긴급재난금 등의 긴급성으로 돈은 풀고 있지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으로는 예산이 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있는데 안 쓰는 상황은 아니니까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원 현황으로만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화재단들의 문화예술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현재로선 문화체육관광부 밖에 없다. 현재 재원 부분에 있어 문체부가 역할을 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광역재단이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구조를 보면 기초는 올해 확인했듯이

코로나19 같은 위기와 재난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말하자면 광역과 기초의 협력체계가 중요한 열쇠이며 해당 지역의 광역과 기초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분담하며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예술인 지원 방식은 공연과 전시 같은 프로젝트 지원과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 복지 이 두 가지 트랙일 것 같다. 고민의 지점은 그걸 통합하고 빈 지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인 것 같다. 예술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노동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 중이다.

올해 재단에서 ‘인천문화예술 분야 코로나19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인천 예술인의 96%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놓고 ‘예술인’ 그 자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피해와 상처를 입은 예술인들에 심리치료를 진행하였다. ‘예술인’ 자체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원 형태였다.

광역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을 정비하고 그들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했을 때, 거칠게 정리해보면 광역재단은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 영역에 대한 역할, 기초는 문화적인 영역을 지원하는 역할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역이 예술 분야를 지원한다면 지역은 소위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을 정리·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등 생활에 밀착된 문화의 생활

권에 들어가야 하는 건 기초 재단이 하고, 예술인 지원은 광역 재단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예술인들의 거주지, 활동하는 지역이 다 다른데 기초로 나눠 버리면 예술 지원 부분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에 광역이 맡아 해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또 하나의 고민은 공연장을 조금 더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다. 앞서 얘기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가속화된 고민이란 생각이 든다.

또 흔히들 온라인, 언택트라고들 많이 하는데 포괄적으로 비대면 예술 활동이란 말이 더 적절한 거 같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문학은 원래 비대면 아니었나? 전시도 비대면이었다. 작품을 만나는 것이 지 작가를 만나는 게 아니니까...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면에서 활동해 온 장르는 공연예술뿐이었다. 대면과 비대면 그 두 장르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대면을 하면서 문제 됐던 것이 무엇이나, 코로나19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대규모 집합, 이런 것들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많이 모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면 된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재 뉴노멀이라고 하는 감염병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예상 하에 정부와 함께 문화재단들이 안전한 시설 이용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같은 경우 대면이 안 되니까 그럼 비대면으

로 하자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수많은 기관과 예술 단체들이 비대면으로 사업들을 진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예술을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담지 말고 각 예술의 특성을 살린 사업 형태로 준비해야 하고, 이를 기초 재단에서 준비해야 한다. 재단이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준비되지 않는다.

비대면은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 아니면 온라인. 문제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대면이 되지 않으니 모든 예술을 다 온라인으로 옮겨야 한다고 왜곡된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이 안 되니 비대면으로, 대면이 가능하면 다시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지점에서 미디어아트 분야가 가장 적절한 해소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들을 해외에선 많이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드물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레지던스 사업인데 온·오프라인의 가장 적절한 결합의 시도일 것 같다. 아티스트와 엔지니어의 협업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시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 현재 온라인 예술 활동의 영역에서 이러한 시도들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예술인들은 생계 수단을 기반했을 때, 공연비나 작품비보다 강의, 강연 이런 교육 활동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 생존과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 문화재단이 훨씬 세심하게 신경 써 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초 재단이 예술가들이 이런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보다 생존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기초 문화재단의 몫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공간들과 연계해서 예술가들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역이나 조건들을 지원해 주는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교육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공간이 생기기까지 재원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역의 공간들이 무너져버리면 재생산되긴 힘든 일이다.

예술인과 공간과 시민들을 연결하고 지원하고 엮어주고 버틸 수 있게 돕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유력하다. 아주 많은 재원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또 기초 문화재단에서 함께 해 주어야 할 부분은 예술인복지제도의 필수 조건인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내용이다. 본인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저항감도 있지만 곧 수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지원기준 자체가 모호하긴 하다. 지원신청서를 받는 건 아니니까.

인천문화재단에서 10월부터 인천이음카드 혜택에 +5%의 추가 혜택이 있는 예술인 이음카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발급 기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완료된 인천 예술인이다. 이렇듯이 예술활동 증명은 모든 예술인 지원사업의 기본 필수 조건인 셈인데 필요하다면 기초문화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 압박은 날로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의 지자체 지원의 체계로 보면 1차 지원 조건은 예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은 1차는 쉽게 통과할 확률이 높다. 기초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등록을 빨리 추진해서 한 트랙을 우선적으로 열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을 넘어 예산 압박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예술인 지원 트랙을 다양화 시켜야 기초 문화재단 하나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정부나 타 기관으로 돌릴 수 있다.

올해 정책적으로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광역단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다. 계획 수립은 기초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도 기초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시행계획에 기초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기초 자치구가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엔 전문성의 한계도 있고 기초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그나마 탄탄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없는 곳은 대응도 어렵다. 현재 문제들을 직시하며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고민을 통해 2025년 제3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기초와 광역 공동의 틀로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단

실장님 의견 중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점이 맞아야 하며 상호 협의

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지금 기초 문화재단들은 설립 당시 공연장 등의 시설 관리의 역할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문제점과 고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춘 지금이 우리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재정리하는 최적의 시기인 것 같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 형태는 공연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소규모 중심의 사업들이 주를 이룰 양상인데 생활문화 형태의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다. 부평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 부평구문화재단이 해야만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주시길 바란다.

손동혁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앞서 광역과 기초의 구분을 거칠게 문화와 예술 분야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의 기준은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 광역은 보편적인 부분, 기초가 특성에 기반한 사업들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민들을 최종 수혜 대상자, 수요자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제공되느냐에 기준을 둔다면 부평구문화재단의 경우 부평아트센터 존재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 타 문화재단은 안 그렇다. 인천에서 연수문화재단은 아

직 시설이 없고 서구문화재단은 문화회관이 있긴 하나 사업에서 부평보다 비중이 크지 않다. 부평구문화재단이 가진 특수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2010년 부평아트센터 개관 시 위상, 역할을 설정한 부분이 있다. ‘국제적 수준의 공연장을 만들겠다.’ 개관 당시에는 그러한 역할 설정이 가능하였으나 10년이 흐른 후 현재의 시점에서 그 설정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노릇이다. 그런 설정을 하는 순간 국제적 수준의 공연장, 그 하단에 수월성에 기반한 뛰어난 아티스트 섭외, 대중성을 겸비한 문화예술 공연, 제일 하단으로 가면 국제적 수준을 가진 시민의식 함양 등이 조건들로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평아트센터를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브랜딩 할 건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과연 그 설정이 유효화한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공연장은 과거에 운영되었던 형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대규모 집합시설은 또 만들어져야 하나 하는 정책적 고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작은 시설 여러 개의 필요성과 이미 지어진 대규모 집합시설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외부적 질문과 고민도 필요하다.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 안에서 필요한 사업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재단

코로나로 인해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재단들의 사업들과 운영에

관한 경영 평가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하고 공공성 영역에 대한 합리성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늘 의구심이 드는 건 경영평가 실적을 만들 때 단순히 공연별 문화나눔같이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수치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무형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 지표를 넘어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재단들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평가지표 재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소영

동감이다. 문화예술기관은 특히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인데 경영평가 지침에 묶여 행정 지침을 따라 판단해 보면, 평가 수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변경 또한 어렵다. 중앙에서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되는 평가항목들이 있으면 사업과 기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

손동혁

실제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단 근무자들이 매년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 거의 대부분이 출연기관이다. 그에 따른 설립 관련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다. 출자기관인지 출연기관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나 하면 아주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수익이 어려우면 출연기관으로 간다. 이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의

태생 조건이 그렇다.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수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분석할 때도 경제적 수익보다 암묵적 편익을 고려하도록 해놓았는데, 암묵적 편익이라는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문화재단 근무자 중 기관의 태생이 어떤 것이고 내가 근무하는 이 직장의 존재와 근무 형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재단에서 할 일이 있고, 지역재단들이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전국 재단들이 할 일이 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경영평가의 기준, 출연기관으로서 역할과 성과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근무 직원들의 인식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팀 간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을 교류하지 않으면 우선 당면한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 공동이 필요한 전제가 있다면 구성원들의 인식 공유가 먼저다. 경영평가하는 사람들은 경영학 전문가들이다. 그러한 평가지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화재단, 연구원 등과 같은 특수한 조직은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다. 본디 평가라 함은 비교하기 위함인데 이 정성적 평가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 별도의 평가 방식은 재단들이 제안하는 수밖에 없다.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등의 인식 전환과 함께 무언가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의미들이 퇴색되는 혼란한 시기에 있다.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기 위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번 포럼도 로컬리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다. 지역 문화와 자치, 분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 정체성 또한 많은 논의를 거치는 중이다. 이를 위한 질문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부평과 부평구문화재단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소영

아무래도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에서 처음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외부에선 선구자라는 인식이 있다. 지금 논의되는 고민들은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에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답을 원하신다면 비슷한 입장을 가진 기관의 담당자들과 꾸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 실장님 말씀처럼 직원들의 인식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의 재단들이 더욱 협력하는 구조가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손동혁

인천은 급히 확장된 도시다. 30년 전만 해도 부평과 인천은 다른 도시 같았다. 옛날에는 인천사람이 아니라 부평사람이라고 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계양, 서구, 부평 이 세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이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자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묶여 있었던 부평, 서구, 계양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봐야 그제서야 정체성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섬과 내륙의 문화권이 다르고 구도시와 신도시도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크게 분류를 한 후 세부적으로 나누어 들어가면 서구와 청라가 다르고 연수구가 송도와 다르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같은 적용 방식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 부평이야말로 공단도시이다. 부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평역 지하상가, GM대우와 공장들, 부평시장이 있을 것이다. 인천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정체성을 논하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사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도시 프로젝트가 역사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매우 좋은 프로젝트이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리 고장의 정체성 찾기라고 판단된다. 그 과정에 충실하면 참 좋을 텐데 프로젝트 결과의 압박에 이 좋은 프로젝트는 곧 형식적으로 되어 버린다. 부평도 문화도시라 말하고 있으나 대규모 음악 프로젝트가 되어 버리고 있는 이런 결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단 근무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재단을 빼고 생각해보자. 문화재단의 출발은 해당 자치구에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다. 문화재단이 있어야 집중적으로 지역 문화에 대해 고민할 사람, 전문가로 불리는 업자가 생기게 될 것이 아닌가?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겠으나 문화원은 문화재단과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재단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고 시간이 지

나면 지역 문화에 대해 제일 많이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일 것이다. 부평문화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문화재단 직원인 것이다. 그 고민은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재단의 전문가들이 해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정체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은 정체성 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은 히틀러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통치이념이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으니... 정체성을 강조하면 혈통으로 간다. 정체성의 모든 논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에 일정하게 공유된 정체성이 없으면 문화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거나 자체도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 결과들이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적정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정을 해버리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정치적 영역에서 집단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 문화적 영역에서 집단들이 구성되는 방식에 있어 문화의 관점은 다양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재단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 전에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콘셉트로 음악도시를 표방하고 역사적으로 캠프마켓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각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각 구성원들이 우리 부평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

가능한 것이긴 하다. 부평의 모든(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도시 부평을 이야기하면서 <음악도시>, <캠프마켓>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고민의 출발점이 부평은 음악도시라는 것을 내세운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부평의 정체성을 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부평음악도시로 귀결되는 것 이기도 하겠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각 구성원들의 부평이라는 지역이 가진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손동혁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표하자면 그런 식의 접근이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도시의 랜드마크처럼 말이다. 그럼 합의의 과정이 쉬워진다. 목표한 곳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하나는 현재 벌어진 사건, 이슈, 대중성에 집중·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부평 캠프마켓에 미군 기지가 있었다는 것은 가장 쉬운 기억이다. 대중음악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가수를 지정하기 쉽다. 논의의 과정도 있겠지만 어쩌면 당연히 정해진 결론일 수도 있다. 그런 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획의 위험성일지도 모르겠다.

정체성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정체성은 합의하는 순간 반드시 소외자가 생긴다. 그다음 단계로 동의 후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정체성의 순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게 된다.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정

적인 영역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예민하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다양성의 관점을 견지하고 유지하고, 연결하고 하는 태도 이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연수문화재단 정시운 팀장과의 대화

2020.11.3. 화요일

연수문화재단 회의실

재단

지난 목요일 인천 지역 재단 정책 관련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었더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같은 주제로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수문화재단도 사업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대단위의 사업들도 준비해 왔을 텐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시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11월 마지막 주 연수문화재단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연수구 문화공원, 연수아트홀, 송도 커널워크 등 연수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창립 1주년을 기념한 연계행사로 연수구 문화의 집에서 '문화 다양성 특강'을 3주간 진행했고 야외 공연도 진행했다. '문화동행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화도시 포럼도 열었다. 송도 2동 마을축제 '나도 쫓! 놀고 싶다!'도 진행했다. 포럼과 마을축제는 온·오프라인 병행하였고

많은 기관들이 그러하듯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상황도 있다. 이번 1주년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문화도시 포럼의 온라인 참여자가 기대 이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연수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신생 재단이다 보니 지역 주민의 관심의 정도가 높아 온라인 참여자 수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시설이나 축제 중심이 아닌 광역 재단의 팀 구조로 구의 문화정책의 중간지원 조직 성격이 있다. 구와의 협력체계가 매우 잘 잡혀있다. 이번 포럼에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포럼 안내 문자 보냈는데 그로 인해 더욱 유입이 더욱 잘 되었던 것 같다.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개방성이 좋았다.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했는데 특히 송도 2동 마을축제와 문화이모작 사업을 함께 진행해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공모사업은 타지역은 구 단위로 진행했는데 연수구만 유일하게 한 동네에 집중 투여해서 운영하고 있다.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 내년에도 진행할 텐데 연수구의 주요 정책사업, 동단위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배양할 예정이다. 단위를 좁혀 동 단위로 운영을 했을 때의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지역 내 우수사례가 만들어지면 주변 마을에 선 영향을 끼치고 자연스럽게 주민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 올해 특징적인 공간 지원 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민간 문화공간 협력 사업인 <우리동네 문화등대>이다. 지역 안에 있는 민간 문화공간들의 어

려움을 해소해 주고 공간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문화재단이 온전히 다 지원해 주는 형태이다. 공간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다. 연간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의지로 중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원을 끝내지 않는다. 지금 3군데 서점, 카페, 미술학원이 우리동네 문화등대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 해가 지나 새롭게 세팅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년 누적 구조로 지원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구조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지원, 예산 분배 등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단은 행정 지원에만 집중한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방식이다. 공간과의 실험을 통해 민간 공간들의 저력이 쌓이는 것이 지역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공간 지원 사업도 그렇지만 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하고 지원할 때 결과를 퀄리티로 따지지 않아야 하는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훈련의 과정이고 그것들이 반복되면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

정책 수립과 결정,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광역이 방향을 잡으면 기초는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행정적으로 광역과 기초단체의 협치 구조를 중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모나 사업의 지원서 양식도 통일되면 좋을 것 같다.

재단

지역에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공존하는데 그 둘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는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협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지역의 다양한 문화 형성이 가능할 것 같다.

정시윤

광역문화재단에서 근무하였던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재미있고 놀라운 점은 목적 없이 만나면 의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공동포럼, 공동연수 같은 공동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목적 없이 만나서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안에서의 협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계의 형성은 이를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재단

이번 포럼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형태이다. 지역주민과의 만남도,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도 지역 내 재단 관계자와의 만남도...우리에게 뉴노멀시대, 로컬리티라는 대주제는 있었지만...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자면 내년이면 재단 설립 15주년인데,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 파편화된 부평구문화재단의 다양한 기관들과 공간, 그리고 사업들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 중에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시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 내린 결론을 얘기하면 ‘문화 재단을 브랜딩 하는 방법은 없다’이다. 출자·출연기관은 병렬식으로 각 기관들이 붙는 형태이다. 각각의 기관들과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떠한 아름다운 (정체성) 이미지를 그리는데 이것들을 직렬식 구조로 바꾸려고 들면 고유성조차 퇴색되어 버리고 만다. 각각의 독립된 기관과 부서들로 고유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 그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개별적으로 역량이 쌓여 개방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성장하는 각각의 기관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재단

내년 우리 재단은 설립된 지 15년째로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데, 그렇기에 완숙해지기 전 청소년기에 있어 누구나 겪듯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도 함께 수반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던져 본 질문이다.

내년에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연수문화재단의 2021년 준비는 어떠한가?

정시운

2021년 예산과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19 중심으로 작성하고 제출했다. 기본적으로 내년 진행되는 모든 사업의 참여자들은 5인 이하로 계획했고 비대면 진행을 고려해 온라인 사업도 함께 준비 중이다.

올해 사업은 긴급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진행 예정이다. 토요문화마당 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대규모 무대였는데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작은 무대들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계획도시로 87개의 공원이 있다. 모든 음악 사업 같은 경우 버스킹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연수구에는 관 주도형 문화관광형 축제인 능허대 축제가 있는데 이 또한 시민 주도 축제로 변모를 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축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내년 주요한 변화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오픈할 예정인데 입주작가 스튜디오 총 8개 공간으로 장기 5명(팀), 단기 3명(팀)을 우선 목표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 구 차원에서 열심히 잘 진행했던 사업들을 재단이 이어받아 그동안의 실적과 성과들을 드러내는 것, 문화원과의 협치 관계를 구축해 상호 보완해 가며 양방향 적극 지원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러한 협치 구조도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가령 내년 문화 다양성 주간에 인천 지역 문화재단들이 협력, 공동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상해 봤다. 문화로 연대하는 것이 결국 그 지역만이 가진 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Section 4.

뉴노멀시대, 로컬리티결론

뉴노멀시대, 로컬리티에 대해 지역주민, 지역예술가, 지역문화재단 정책담당자들과 토론한 결과들을 두고 시각예술, 예술행정, 예술기획, 예술교육 전문가와 함께 대화나누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뉴노멀 시대에 더욱 견고한 로컬리티에 대해서도....결국 핵심은 로컬리티이다.

2020. 11. 5. 목요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함께 한 사람

공주형 _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한상정 _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채은영 _임시공간 대표

전승용 _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교수

채은영

지역주민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의 제약으로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꼈던 것에 깊이 공감한다. 공공기관과 미술관 등 대형 공간에서의 전시 등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작고 소소한 민간의 공간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각 예술 분야를 예로 들면 부평구문화재단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중심으로 사업이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전시를 기획하고 주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재단의 전시장으로 한정 짓지 말고 민간 전시장, 북 카페 등 다양한 민간의 기관들이 지역에 드러나는 형식으로 공간을 발굴하고 그 전시를 홍보하거나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동네에서 산책하듯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신생 공간이나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간과 매개자, 기획자를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 그 공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연, 전시 외에도 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양질의 작업이나 그 작가의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동네에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상정

사업담당자의 1~3섹션 브리핑 가운데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형태를 예술가들이 직접 공연이든 전시를 기획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형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중 의미 있게 지켜본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예술가들에게 특정 사업이 아닌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인 셈이다. 작가들이 각종 공모를 통해 지원 사업을 따내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기획안을 내고 사업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특징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작가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고 그들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결과 중심이 아니라 각각의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겠다. 부평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각각의 과정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겠다.

채은영

코로나19로 수많은 긴급성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마다 긴급성 신규 사업을 만들어 진행하는 지원 사업의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상황에 따라 긴급성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공모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술 활동 유지를 위해 그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야 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때마다 각각 다른 계획안을 쓰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정산을 하고, 그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광역이 아닌 기초 지역의 재단에서는 이 지역 안에서 지역 예술가가 지속 가능하게 전망을 갖고 활동을 정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한다면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짧은 호흡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활동하거나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예술가로서 지역에서 창작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등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 제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과연 상황에 따라 긴급성 지원 사업 형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현재의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됐으니 온라인이든 다른 방식이든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전시나 공연 등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다. 부평이라는 지역의 지역성이라든지 로컬리티를 생각해 보자면 유연하거나 민첩하지 않더라도, 느리지만 무게감이 있도록 다른 방향의 어떤 지원방법을 이루어내는 것이 부평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다. 지역의 로컬리티와 기초 재단의 캐릭터대로 지원과 정책을 이루어내는 것이 공공의 재단에서는 중요한 방향이나 가치로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공주형

팬데믹을 겪으며 로컬리티라는 것이 대두되었는데 사실 지역의 기초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 정체성, 로컬리티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계속적인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 문화분권과 자치를 정책 핵심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 공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

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 번쯤은 검토해야 하는 내용들이 로컬리티, 자치, 문화분권 등일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장 필요한 부분보다 팬데믹 등의 시급성 문제 제기가 우선 논의 되는 것 같다. 최근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관들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서 채은영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변수를 내려놓고 지속성 안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 단계별 지원 제도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성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겨 변경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꼭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지역 기초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전승용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 지역의 서구와 연수구와는 달리 시설, 공간 중심의 기초 문화재단이다. 공간 베이스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기초문화재단으로 현실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공간 베이스로 운영되는 재단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시적 재난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콘텐츠

를 만들어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 고민과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다른 기초 재단들보다 풍부한 공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도서관 사랑방 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등이 모두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 공간들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부평 같은 경우엔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정도의 사업이 있고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신진작가 발굴 지원 정도가 전부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 중심이 아닌 직접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상시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에 어떻게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에서 생활문화 동아리가 제일 많은 곳이 부평인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폐쇄된다면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제일 것 같다.

공주형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모두 큰 문제인 것 같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운영 성격과 달리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 중이다. 예를 들면 전시 공간

을 소수의 작가에게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 다 든 지
에 이런 방식들에 대한 일종의 기능 전환을 고려하
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이
니 공간의 기능 전환을 논의한다면 매우 많은 논란
이 있을 것 같다. 생활문화 동아리나 예술교육이 활
발히 활동한다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공간의 기
능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업들에 대한 변화의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채은영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로컬리티에 관한 나
의 생각은 최근 문화분권, 자치에 관한 화두가 지속
되면서 지역이 중요해지고 지역성이라는 것이 강조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은 이전의 지역이
가진 일종의 특성, 폐쇄적이거나 일종의 과다대표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모든 세계는 연결되었다는 것을 절
감하였고 지역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지역을
소비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이 지역은 아니었으면 좋
겠다. 부평에서 생각하는 로컬리티는 모두를 위한
지역성이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삶을 정주하는 입
장에서 시민이겠지만 지역의 예술가들은 풀이 뽑히
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지원 사업들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시민들과는 다양한 관계를 맺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예술가들과의 관계 맺기는 좀 더 열어두었으
면 좋겠다.

지역의 아카이빙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지역의 문
화 자산을 아카이빙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은 아카이

빙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제공해 주는 대상자였던 경향이 짙는데 부평은 그 시민들이 아카이빙의 대상이나 제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을 살아온 그 사람들이 지역의 자원을 기록하는 주체자가 됐으면 좋겠다. 워크숍이나 문화예술교육, 생활 문화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는 행위와 결과물 자체가 부평의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 평창동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미술관)이 생기는데 시민아카이브 양성과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디지털 아카이브든 물리적 아카이브든 자신들의 미시들의 기록자가 되고 연구자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이 개념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른 연구자 기록자들이 될 수 있다. 부평 또한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기록자가 되어 아카이브들이 모이면 어떠한 특정한 공동체나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을 하는 부평이 아닌 모두를 위한 부평이 되는, 모두를 위한 로컬리티로 확장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기초 지역에서 지역을 강조하는 방식, 지역을 위해 기획하고 창작하는 방식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개인사가 지역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지역성으로 확장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부평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서울과 인천의 경계에 있는 위치, 그로 인한 개방성,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볼 수 있겠다. 그 역할을 하는 향유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기록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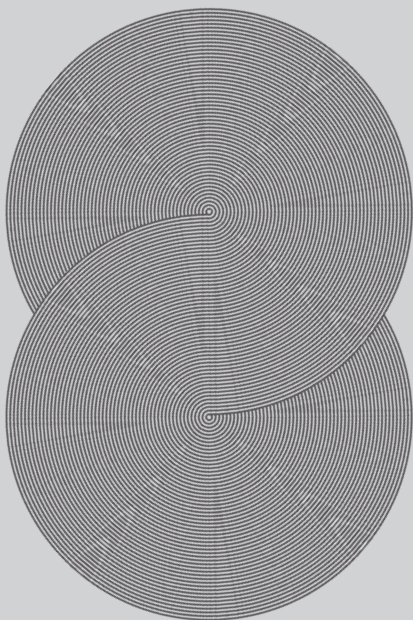
이다. 이 시민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술가들은 촉진자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시민과 예술가들의 관계성을 재구성해 주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문화재단이 하면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공주형

로컬리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앞서 이야기되었던 것들을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 부평이 가진 역사성, 장소성, 그로 인한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로컬리티를 규정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로컬리티 정립, 규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로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재부터 부평은 그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들을 사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부평구문화재단이 가진 많은 공간이 제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근 로컬리티 관련 세미나나 포럼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재단의 공간들을 그러한 장소들로 내어주고 스트리밍 서비스들로 제공하거나, 부평의 시민들이 경험치들을 쌓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들로 활용하면 좋겠다.

부록

1. 부평문화포럼 섹션별 주요 내용
2. 자문회의록



사업개요

사업명

2020 부평문화포럼_라운드테이블

주제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 고민을 묻고 답하다

주제문

만일 역사는 반복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가(버나드 쇼, 1856~1950)

내용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시대 진입으로 적극적인 행정 및 사업 운영 등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진 위기와 불확실의 시대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 사회적 가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의 문화 정체성 등에 대한 각 토론 그룹의 심도깊은 논의로 로컬리티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개발 및 전개를 위한 유연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논의의 장

구성

Section 1. 뉴노멀시대, 지역사람의 생각과 기대

Section 2. 뉴노멀시대, 지역예술의 가치와 미래

Section 3. 뉴노멀시대,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

Section 4. 뉴노멀시대, 로컬리티 결론

Section 1. 뉴노멀시대, 지역사람의 생각과 기대

2020. 10. 17. 토요일

지역주민 5인(시민회원, 부평구문화재단 동호회,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회원)

지역민 중심 시민그룹의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로컬리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생각,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바람, 이를 통해 살고 싶은 부평을 위한 방향 모색

-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극장, 미술관 등에 방역 권고조치에 의해 가장 먼저 문을 걸어잠금. 이로써 적극적인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최상위계층의 소외 현상은 심화됨
- 코로나19 이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양극화 현상 심화되었음. 모든 지역민에게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공극장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타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인 대응에 실망하였음. 향후 적극적인 사업의 변화와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가 요구됨
-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각자의 생활을 즐겼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자신의 지역 안에서 만끽하고 싶은 욕구 발생하였음. 더욱 밀도있게 지역 안에서 문화와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해짐. 적당한 거리두기, 적당한 사람이 있는 공간, 소수에게 더욱 집중하는 콘텐츠가 제작되고

지역 안에서 진정성 있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를
원함

Section 2. 뉴노멀시대, 지역예술의 가치와 미래

1부 2020. 10. 20. 화요일

2부 2020. 10. 22. 목요일

지역예술가9명(음악, 국악, 무용, 미술, 서예, 사진
장르별 안배)

지역문화의 뿌리인 지역예술가와의 토론을 통해 변
화된 환경 안에서 지역예술의 가치와 치유, 회복 등
의 함의를 이끌어내도록 토론

- 비대면 시대에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객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함. 다양한 장르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함. 타지자체에 비해 예술인 지원 제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함께 상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지역예술가는 독자적 트랙으로 움직임이 아쉬움
- 예술인과 함께 예술의 가치를 선언해야함. 예술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치로 사회에 상호작용해온 것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처한 위기와 불안감,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감각과 정서, 역량에 예술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공극장, 공공의 문화재단은 예술인과 함께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함

Section 3. 뉴노멀시대,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

1부 2020. 10. 27 화요일

2부 2020. 10. 29. 목요일

1부 재단 내 워킹그룹(문화도시, 공연전시, 예술교육, 생활문화 사업담당)

2부 지역문화재단 관계자(인천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재단 내부 워킹그룹과 인천 지역문화재단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발발한 지역문화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뉴노멀시대에 지역문화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토의

- 지역예술인과의 조건없는 협업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감각들을 만들 수 있는지, 과연 선순환구조가 생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될 수 밖에 없음
- 접근성의 편리성이 있는 온라인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최상의 완성도의 유지와 생산이 필요함. 무료 콘텐츠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료화를 위해 온라인영상 콘텐츠의 완성도가 중요해짐.
- 아티스트와 기획자, 제작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및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함.
-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배 등 재정립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광역재단은 예술 분야,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적인 영역 지원 형태로 선택과 집중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할 필요 있음. 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그 안에서 논의될 지점을 찾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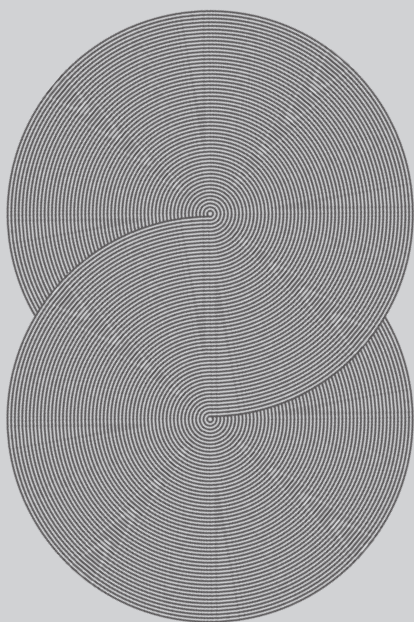
노력이 필요함. 협력체계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함

- 지역의 성격을 탐구하거나 그 지역만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전망을 가지고 로컬의 새로운 의미체계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함. 그런 의미에서 부평이 가진 로컬리티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Section 4. 뉴노멀시대, 로컬리티결론

-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문화예술분야 지원 방법과 형태 및 정책, 기초문화재단의 지원 방법 모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소극장 지원, 전시공간 긴급지원, 공공미술 공모사업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응자,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코로나19 대응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미술품지원 대여 지원공모, 코로나19 대응 전담창구 운영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금, 경상비, 일자리 지원에 집중
- 팬데믹 시대, 예술의 역할과 의미
- 상시적 재난, 감염병사회에서 예술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 및 문화재단의 역할
- 로컬리티 담론

부평문화포럼 라운드테이블 자문회의



부평구문화재단 우사라(이하 재단)

2020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부평문화포럼에 전문가 (자문가)분들께서 특별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변수들이 많아서 기존에 진행하던 포럼 형태가 아닌 좌담 형태의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 나눠드린 포럼의 썬머리, 회의자료를 보시면 총 4그룹으로 나누어 4회차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들은 대담집 아카이브 북 형태로 출간될 예정이다.

채은영

라운드테이블 결과들이 향후 논의 되어져서 사업들에 반영되거나 다음 단계에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은 '예술인이 어렵고 힘들다' '온라인으로 전환 해야한다' '지원과 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등 예상되는 결론들이 많다.

재단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사업과 재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방법들을 찾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업 형태는 물론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방법들을 찾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상정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 각 그룹별로 2시간 이내 짧은 시간안에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단

사업담당자로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지점이지만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대부분인 90% 정도는 비슷한 논의들이 펼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특별한 우리의 목표를 찾는 것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미션이다.

염려되는 부분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문화재단에도 사업비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공주형

주제인 뉴노멀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재단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4그룹인 예술가, 재단 등 문화예술계의 모든 주체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채은영

아무래도 '예술가'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을까.

공주형

문화 예술이 편안하고 풍족했던 시절은 없었으나 현재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기관인 재단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있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지역 내 예술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예술이 넉넉했던 적은 없었지만 어렵게 지속 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다. 늘 공적 지원에 의존이 높았던 것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 층별, 계층이 빈약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적 경향으로 보여진다. 재단 내부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사업의 지향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기존의 방향이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 낱알의 예술가 개인들이 이루어 내었던 것이라면 지금은 예술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조건들에 놓여져 있다.

문화예술생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의 방향 전환 등의 심도 깊은 고민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문화예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생태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술의 공적 가치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의 고민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 같다.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체계적인 플랫폼 안에 안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카이빙 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인천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등과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

전승용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부분의 한계와 제한점이 존재한다. 사업 베이스로 운영되는 기초문화재단이 뉴노멀 시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 2차 저작권과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기초문화재단의 한계는 명확하다. 라운드테이블 진행을 위해 분류된 4개 그룹 중 사업담당자 워킹그룹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꼭 필요한 타깃이 설정되어 매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뿌듯하다. 그러나 그 외 세부 그룹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그룹에 관한 분류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인 부평구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채은영

코로나 시대에서 광역이든 기초이든 중앙정부가든 역할 나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한 전시의 예산이 보통 2억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수 억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작은 동네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에 관람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을 보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할들이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형태로 계속 얘기하니 답이 안 나온다. 완전 다른 전환의 방식이 필요한데 포럼 또한 이제껏 진행해 왔던 아카이빙 축적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완전 다른 작동 방식이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분류된 그룹들은 일종의 FGI 표적집단면접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늘 해왔던 포럼 같은 형태보다 더욱 콤팩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있다. 그렇기에 표본 설정은 다시 한번 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상정

그룹별 2시간의 논의가 유의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사태에 유례없는 사업으로 유례없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기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광역이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싹틔줄 같은 존재이다. 그룹별로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떠한 것인지 사업담당자의 고민에 더해지는 그룹들이 셋팅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예술가그룹, 문화예술 분야의 아무런 뜻이 없는, 지역안의 시민그룹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기초재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견된다면 광역이나 정부의 정책 제도에 기대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승용

2017년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수립되고 그

러한 정책들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시행계획들이 세워졌을 때에는 코로나 이슈가 없었다. 5년 동안 해나갈 사업들을 변화된 상황 속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과 새로운 목표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정책들을 놓고 변화된 상황에서의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공주형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의제들이 더욱 명확해야 할 것 같다.

채은영

자료의 공개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공개가 된다고 하면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재단

그것들을 우려해 온라인 포럼을 지양했던 것이고 사업의 결과물은 나와야 할 것이기에 대담집 아카이브 북 형태로 발간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채은영

오늘 논의를 통해 그룹핑함에 있어 재단 내부 워킹 그룹, 예술가(창작자), 매개자(기획자), 시민 이렇게 네 그룹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더레이터는 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평구문화재단이 부평

구의 기초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라운드 참여자들은 부평에 생활권을 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전승용

사업베이스의 기초문화재단인 부평구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현 상황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채은영

문제의식은 예술가나 시민이나 재단이나 고민하는 방향점은 비슷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조화된 브리핑을 통한 현황 파악 후 콤팩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후 재단 내부의 구조나 현실적인 면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의 로드맵 같은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재단 내의 직원들도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캐치 해 내고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직원들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많은 예술파트들은 예술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제도 아래 포섭되어 있다.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도 단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모형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공적인 부분의 예술의 창작과 유통의 방식인가... 지역에서 기초에서는 더더욱 적게 더욱 느리게 창작하고 기획하고 유통하는 부분

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예술의 공공성과 상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팬데믹 상태의 모든 삶의 구조와 전체를 고민하는 것처럼 예술의 창작과 유통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상정

재단 직원들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평구민들의 문화권을 얼마나 확장 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포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업으로 해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일종의 ‘프로그램베이시어링’처럼 사업을 셋팅 해 보고, 문제화될 수 있는 과정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현장 교육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직원 역량강화 방식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다.

공주형

어떻게 포럼을 진행할까, 포럼을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주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구성과 형태 부분은 앞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시민영역을 포함한 그룹들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포럼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고민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오는 의견들과 논의되는 것들을 수준과 상황을 한 번 점검한 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껏 포럼들이 축적되어 온 것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고민한 후 지속가능하며 심화된 것들을 좀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다.

전승용

부평구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출하여 직원 내부에 공유가 되어지고, 공통으로 묶여야 할 것 같다. 너무나 파편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아쉽다.

채은영

내부적으로 이 조직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관성화되기 쉽고 제도적 한계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뛰어넘기 힘든 부분이 생기는데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조직의 공통 주제 안에서의 경험들이 선순환구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의 정체성이나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을까...

전승용

인천에 신도시가 생기고 주변 도시가 확장되는 변화되는 상황에서 부평구민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지금껏 잘 해내었는지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채은영

부평이 인천에서는 가장 먼저 기초재단이 설립되었고 신도시들이 공격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내야 한다면, 부평은 어떠한 점에서 정체기일 수도 있고 부평이 가진 축적된 데이터들이 안정기일 수도 있고,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새로울 수 있다. 때문에 이 포럼을 통해 문화

행정이나 매개를 너무 거시적이지 않고 미시적으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공주형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니즈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질문은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단이 다 맞춰 가야 하나? 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그 비중에 대한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아주 세련된 방식과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형식 안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또한 필요할 것 같다. 아예 주민들의 원하는 것, 필요에 의해서 밀착해서 하는 사업과 선도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부평이 가진 장소성과 역사가 확실히 차별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선긋기도 필요할 것 같다. 뉴노멀 시대, 우리, 가야할 길 등 전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포럼이 가진 취지에 대한 키워드들 몇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다. 너무 거창하지 않게.

재단

오랜 시간동안 진심을 다한 고전 주셔서 고맙다. 자문주신대로 부평문화포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

모든 역경에서 선의 씨앗을 찾으라.
그 원리를 터득하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방패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오그 만디노 Og Mandino(1923~1996)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기획총괄 **김유정**

발행일 **2020년 12월**

기획편집 **우사라**

발행인 **이영훈**

디자인제작 **엘리스**

편집인 **홍준식**

편집디자인 **고정희**

본 대담집은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www.bpcf.or.kr